

한국당 특검 공세…민주 “정쟁몰이 그만”

한국당 운영위 기록 법리 검토…바른미래당과 공조 추진
민주 “내용 상식적 오류 심해”…신 전 사무관 자살 해프닝도

여야가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이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를 둘러싸고 다시 충돌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3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주장한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관여와 적자 국채 발행 강요’와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당은 특검을 도입하려면 바른미래당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보고 양당 공조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를 위해 한국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운영위 발언 관련 속기록을 행기며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무엇보다 한국당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감찰한 것은 불법적 강제조사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신 전 사무관의 폭로 관련, 이날 오후 ‘나라살림 조작사건 진상조사단’ 첫 회의를 열어 쟁점을 정리하는 등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진상조사단장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추경호 의원이 맡았고, 진상조사단원으로는 관련 상임위원인 기획재정부와 정부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도록 했다.

특히, 한국당은 이날 ‘공익신고 제도’와 관련해 정부·여당의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정부·여당이 자신들에 유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익신고’라고,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고영태는 의인이고 김태우와 신재민은 범죄자인가. 고영태가 의인이면 신재민도 의인이고 공약제보자”라며 “위선적인 이중잣대를 버리고 실제적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고영태 전 더불어민주당 이사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폭로한 인사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등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어 다른 상임위원회 개최도 요구하는 데 대해 ‘발목잡기식 정쟁 몰이’에 불과하다며 불가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은 특검, 국정조사에 상임위 개최까지 하자고 주장하는데, 참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든다”며 “정쟁으로 몰기 위한 상임위 소집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들도 이례적으로 참석해 야당의 상임위 소집 요구를 비판했다. 기재위 간사인 김경수 의원

은 “신재민도 김태우에 버금가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상임위 소집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담회를 갖고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어떤 폭로도 공익적 제보인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논리적으로 봐도, 또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된다. 이 문제를 심오하게 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유서를 남기고 잠적한 지 네 시간 만에 호텔에서 발견되면서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전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문자와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낮 12시 22분께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인근 모텔 객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권 유력 인사의 비리 첩보를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靑 특감반 의혹’ 김태우 검찰 출석

“박형철 靑 반부패비서관 첩보 누설” 주장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첫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청와대 특감반의 여권 고위인사 비리 첩보 및 민간인 사찰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오후 1시 16분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 수사관은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묻는 취재진 앞에서 “간략한 심정을 말씀드리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수사관은 “16년간 공직 생활을 하며 위에서 지시하면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하고 살아왔고, 이번 정부에서 특감반원으로 근무하면서도 지시하면 열심히 임무를 수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업무를 하던 중 공직자에 대해 폭압적으로 휴대전화를 감찰하고 혐의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다”며 “자신들의 측근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고 했다. 그는 또 “1년 반 동안 열

심히 (특감반에서) 근무했지만, 이런 문제의식을 오랫동안 생각해왔고 이번 일을 계기로 언론에 폭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수사관은 결백을 주장하면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첩보를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제가 올린 감찰 첩보에 관해 혐의자가 자신의 고교 동문인 것을 알고 전화해 감찰 정보를 누설했다”며 “이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이지, 어떻게 제가 비밀누설을 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의 범죄행위가 낱알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며 조사실을 향했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이던 석동원 변호사가 전날 사임하면서 이날 조사에는 새로 선임된 이동찬(38·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가 동행했다. /연합뉴스

조성길 伊 北 대사대리 잠적

국가정보원은 3일 ‘조성길 이탈리아주재 북한 대사대리의 망명설’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초 공관을 이탈해서 부부가 함께 잠적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정보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에게 “조성길 대사대리는 2018년 11월 말 일기가 만료되는데, 임기만료에 앞서 11월 초 공관을 이탈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2015년 5월 3등 서기관으로 부임을 한 뒤 1등 서기관으로 승진했다고 알려져 있다”며 “주이탈리아 북한 공관에 3등 서기관 1명, 1등 서기관 2명, 참사관 등 4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여권 차기 대선구도 새 판 짜기

이낙연·유시민 각축 속 임종석 급부상

야권에선 황교안·오세훈 강세

새해 들어 장외 주자들의 등장으로 차기 대선구도가 새롭게 짜이고 있어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3년 4개월이나 남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기점으로 대권 시계가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야의 차기 대선 주자 및 구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일단 여권에서는 이낙연 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양강을 이룬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포진했으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류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판이 흔들리고 있다.

전통 친노(친노무현)로서 여권 지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데다, 방송에서 보여준 거침없는 입담으로 얻은 대중적 인기는 유 이사장이 가진 정치적 자산이라는 평가다. 본인의 대선 불출마 입장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 가운데 지지율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올 상반기 내에 청와대를 나올 것으로 알려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도 다

크호스로 꼽히고 있다. 올해 초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개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임 실장도 차기 대선주자로 상승가를 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지율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과 안철수 전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원희룡 제주지사과 남경필 전 경기지사도 야권의 차기 주자로 꼽히고 있다.

야권의 대선 구도는 자유한국당의 2월 전당대회와 정계개편, 내년 4월 총선이 큰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주자들이 대부분 당내 지지세력이 약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내 검증과정에서 후보군에 상당한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 전당대회 후폭풍에 따른 정계개편이 가시화할 경우, 시대 요구와 맞는 리더십을 가진 후보들이 급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차기 대선이 아직 3년 이상 남은 만큼 현재의 대선 구도는 시기상조라는 평가다. 사실상 인기투표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와 그에 따른 정계개편, 차기 총선 결과 등 각종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의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 결과는 말 그대로 인기투표적인 측면이 크다”며 “하지만 이러한 여론조사로 만들어진 차기 대선 주자들의 인지도는 차기 대선 국면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정당 득표율과 비례로 의원 수 정해야”

문희상 국회의장 신년 기자회견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선거제 개혁의 대원칙은 정당득표율과 비례로 (정당별) 의원 수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어려우면 가깝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 개혁이고, 더 나아가서 개헌까지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1·2·3안이 딱 요약돼 있고, 그중 하나가 될 것은 분명하다”며 “몇십년 정치개혁 중 제일가는 효과를 볼 것이다. 이것만 되면 정치 상황 자체가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지난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남북국회회담에 대해서는 “국회회담을 서두르거나 재촉하지 않되, (남북 회가) 왔다 갔다 하는 등 다른 방법, 새로운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 한 문 의장은 “저변의 민심은 경제전망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소통이 중요하다”다.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며 미래로 나아가야 하겠다”고 역설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1566-9988

돋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돋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신세계안과 옛. 밝은광주안과

J16 40 point	8 5 1
J10 20 point	1 6 5 2 4
J8 14 point	6 8 2 4 7 5 8 1
J7 12 point	2 5 1 6 4 9 7 8 3
J6 10 point	1 3 0 7 5 8 4 9 2
J5 8 point	2 4 6 3 7 1 2 8 0
J3 6 point	4 6 2 8 1 0 9 7 3
J2 5 point	5 7 6 2 1 4 3 0 2
J1 4 point	4 3 1 7 9 8 0 2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J1+ 3 point	5 7 6 2 1 4 3 0 2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062) 362-3336

산수오거리지점

돌고개지점